



세기산업기술주식회사는 「사랑, 이해, 양보」의 사훈 아래 전산실 TOTAL SYSTEM을 주종으로 하는 전문 메이커로서 인공환경을 창조한다는 능동적인 취지로 냉동, 공조 산업분야에 선두주자로서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유니콤의 첨단기술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노력의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직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희생과 봉사로서 성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들어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산실의 향은 향습기나 전원장치 (UPS & AVR), 경량칸막이, 이중마루설비, 할론소화설비등 전산실 TOTAL SYSTEM의 설비를 주종으로 하는 세기산업기술주식회사 (대표: 조학준)는 지난 87년 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3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21배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꾸준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동업계에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세기산업기술주식회사는 기술직 40명, 사무

직 50명, 생산직 40명 등 총 1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대구, 대전등의 각 지방 사무소와 일본 동경에 지사를 두어 대외적인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동경지사를 통해 일본시장의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 시장과의 비교 열위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본사의 무역부를 금년들어 신설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해외시장 조사로 신제품 개발과 PROJECT와 제품의 보다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선진외국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국내의 낙후된 동업계 기술력에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세기산업기술(주)는 87년 4월 창업후 첫해에 1억 8천만원이었던 매출액이 다음해인 88년에는 8억 8천만원, 지난 해에는 38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3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1배가 넘는 높은 신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세로 올 한해의 매출 목표표를 9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 3월인 1/4분기까지 매출이 이미 작년 수준의 150%초과 달성

함으로서 다시 100 억원으로 대폭 수정 매출 목표를 세웠다.

국내에서 전산실 TOTAL SYSTEM을 최초로 시공설비한 세기산업기술(주)는 보다 다양한 사업구조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의 정예화된 고급인력으로 기술 개발에 주력함으로서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전산실 TOTAL SYSTEM

세기산업기술(주)는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경량칸막이 공사, 이중마루공사 하론소화설비등 컴퓨터를 제외한 전산실 부대설비를 설계에서 제작 시공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 즉, 전산실 TOTAL SYSTEM을 주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기 조화기, 산업용 응용장치, 환경 시험장치, 항온항습 CHAMBER, 신뢰성 시험장치등의 각종 환경계 시험장치와 CLEAN ROOM설비와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중 주력사업인 전산실 부대 설비는 국내 최초이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시장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항온항습기의 경우 업계 최초로 한국 전기 전자 시험검사소로부터 Q마크 획득에 의한 품질 보증 검사 업체로 인정받음으로서 보다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기산업기술(주)의 연구팀과 기술 개발팀이 자체 개발한 고유 모델인 배변 흡입 방식의 항온항습기는 냉각 코일의 전열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인정받아 의장 등록 특허(제89892

호)를 획득한 바 있어, 세기산업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에너지절약 면에서도 개발을 늦추지 않아 온습도 SENSOR로 부터 감지된 전자 신호를 받아 I.C LOCIC CONTROLLER에 의해 STEP제어기능과 AUTO-TURNING기능으로 지나친 OVER SHUT를 방지하고 정상상태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있으며 장비의 무인 운전 전자동화를 이루고자 편리한 온·습도 SETTING과 FULL AUTOMATIC CONTROL ONE TOUCH방식을 채택 BUTTON SWITCH하나로 모든 기계적 전기전자적 동작이 이루어지게 제작함으로서 미래지향적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두번째 주력 사업으로 커가고 있는 전원 관련 사업(UPS & AVR)은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무정전전원장치(UPS)의 경우 선진 외국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서 하이테크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세대적인 UPS의 STEP WAVE SCR변환 방식과 IC ANALOC 또는 DIGITAL등의 제어방식을 크게 개선하여 PWM 변환방식과 MICROPROCESSOR제어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CTO, TRANSISTOR의 대형화 추세로 전류회로의 생략등에서 오는 잇점을 크게 하였으며 소자의 이용율이 높고 성능이 우수하여 SINEWAVE방식의 회로를 간단히 제어 할 수 있는 동기여부로 향후 실용화

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높은 기술 수준으로 제작된 장비들은 양질의 고급 내장재등과 전산실을 꾸미게 되며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첨단 전산실을 만들어 냄으로서 구매자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아져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90년 6월 파주공장이 완공되어 본격가동됨에 따라 생산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아지며 환경시험장치, 클린룸 설비등

의 투자와 생산에 박차를 가해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모색, 이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아 대외적 신뢰성 재고에 큰 몫을 할 것이다.

적극적인 신념으로 성공을 확신하는 세기산업일동 전직원은 한마음으로 결합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동업계에 제1로 이끌고자 하는 다짐과 함께 결실의 결과로 잠재력을 평가 받고자 보다 더 노력할 것이다.

## 단 신

### 「냉동공조기기조합」 창립

「韓國冷凍空調機器工業協同組合(가칭)」창립총회가 지난 2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항온 항습기·환경시험기를 비롯 냉동·냉장기기생산업체들은 수입개방에 대비 냉동공조기기산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의 결성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新盛엔지니어링의 李完根사장을 초대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11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따라 기존 韓國機械聯合會회원사로 가입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단

체수의계약물량을 소화할 계획이며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원자재 공동구매·부품국산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韓國冷凍空調機器工業協同組合(가칭) 측은 내달초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를 통해 商工부에 정식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냉동공조기기관련 업체들은 지난 87년부터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들어 이를 본격 논의, 지난 7월 19개 업체가 발기인대회를 갖고 협동조합을 정식 발족키로 합의한 바 있다.